

2002년 10월 31일

한양대채용박람회 노무현 후보 연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대화를 위해서 시간 내주시고 그리고 또 자리도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덕담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본론으로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좀 많이 듣고 들은 결과를 가지고 다시 좀더 정책을 깊이 다듬어나가는 방향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근래와서 일반적으로 통계상 나타나는 실업률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들이 참 낮아진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98년, 99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일자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정책에 있어서 복지분야에 오히려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때로 성장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더러 받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복지 중에서 가장 좋은 복지가 일자리를 가지는 것이 최고의 복지다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생활의 방편이라도 하지만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고 또 자기 스스로 생활의 최소한 보람을 느끼고 희망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라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험상 일자리라는 것은 경제가 활성화되었을 때 비로소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경제의 활력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습

니다. 대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일자리에 관한 정책은 원칙적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많이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일자리를 자기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것인데, 세 번째는 산업인력이 급격하게 이동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직업의 이동을 어떻게 원활하게 해낼 것인가 이런 것이 세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일반적인 일자리 문제 이외에 여성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각별히 따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장애인의 문제가 있고,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께 제일 직접적인 것은 일반적인 일자리보다는 요즘 젊은 청년 고학력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편리하게 보편적으로 얘기한다면 경제가 활발해지면 일자리는 어디서 늘어나든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지요. 그 문제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많은 대책들을 내놓습니다만 저로서는 대개 역시 일반론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있어서는 기술혁신, 두 번째로는 합리적인 경제시스템, 세 번째로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문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따로 내놓은 것으로서는 새로운 신동북아시아 그리고 동북아 경제협력과 경제통합이라는 이런 새로운 동북아시아라는 것이 우리 경제에 있어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남북관계를 잘 발전시키고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화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심하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화를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채택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아주 원론적이고 일반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고

학력 사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직종들을 많이 개발해 나가야 된다.

첫째 경쟁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산업군을 선택해서 가장 전망이 밝은 그리고 경쟁력있는 산업의 영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그 산업정책에 관해서 요즘 여러분이 하도 신문에서 많이 보시는 IT산업을 비롯한 6개 티의 산업이 있습니다. 각종 하이테크산업에 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너무 반복되니까 좀 상투적으로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한국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성장산업이라고 물론 믿습니다. 그러나 한국도 이런 산업이 성장하면 역시 선진사회로 갈수록 전문지식 서비스산업이 대단히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고학력사회라는 것을 고려하고 한국이 앞으로 동북비지니스 또는 물류중심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고학력 전문지식서비스분야가 발달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고학력의 한국사회에 맞도록 전문지식 서비스산업들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발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 얼마 전까지만해도 MBA라는 것이 대단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전형적인 지식서비스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우리 한국이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평가분석시스템과 노하우를 국가적 국부로 국가적 자산으로 축적해 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지난번에 국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금융에서 각종 부정이 생겨나온 것도 우리 시장의 투명성과 평가역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이 합리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자꾸만 정치적 영향력에 의존하려는 그런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투명성과 더불어서 평가기법 평가수준을 높여가야 된다. 이것은 국가전략으로서 한번 집중해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적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약 110조원이 넘는 국민의 세금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이냐에 관해서 우리가 성과주의 예산을 내걸고 분석.평가를 얘기하고 있지만 한국의 이 부분이 분석과 평가의 노하우가 부족해서 소위 성과주의라든지 평가라는 것이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 나라에 막대한 국부가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하자면 국가의 전략적 사업으로서 분석과 평가의 노하우를 높여나가는 그런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울러서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이 기법은 나중에 해외로 뻗어나가는, 해외시장까지를 개척할 수 있는 매우 선진적인 직업의 분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육성해 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 IT지식정보산업의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제가 한 가지를 여러분께 제시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 질 향상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이 대단히 수출이라든지 또는 경제적 외형에 있어서 성장과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문화.복지 또 하나 더 있는데 잠깐만 봅시다. 교육.문화.복지.의료분야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공공서비스 이와 같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도 들어가지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서비스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빈약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향상을 국가적 과제로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여기에 서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이 일자리는 다른 일자리와 달라서 단지 수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에게 보람을 주고 또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 바로 복지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복지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 소위 복지.교육.문화.의료 등등의 공공서비스분야에서 적극적인 대국민 서비스 향상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5일제근무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5일제근무는 약68만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입니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정책이라고 한다면 다음에는 여성 장애인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고학력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여성분야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성분야에 관해서는 대개 앞으로 5년간 약 50만개 정도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잠재성장률을 5.2%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 5.2%라는 것이 대체로 여성의 취업률이라든지 성장활동 비율을 현재 약 48% 정도 되는데 이것을 50%가 약간 넘는 수준으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결국 인력공급의 계상애로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5.2%에 묶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인력을 약 50만명 그리고 그 외에 일반인력을 한 10만명씩 더 해서 60만명정도, 아, 미안합니다. 이것은 여성인력의 60만명은 기존의 범위 안에서 다시 늘어나는 것이고, 50만명을 늘리면 전체적으로 잠재성장률을 0.9% 정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의 일자리를 늘리는 일은 바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써의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일자리만들기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수단이 뭐냐, 첫 번째가 육아 보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대체로 보육을 수요하는 사람들에게 평균 절반 정도의 보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여성들을 육아로부터 자유롭게 이렇게 헤드림으로써 여성들의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성일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근무형태라든지 직장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성친화적으로 만들어 나간다 이런 것입니다.

장애인분야에 관해서는 하나로 딱 집어서 얘기할만한 것이 없고 전 분야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취업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역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물론 만들어야 하고 또 장애인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줌으로써 장애인 채용을 늘린다는지, 이 부분에는 원천 많아서 일일이 설명 못드리겠습니다만 장애인부분도 특별히 집중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소외된 사람들의 대개 일자리를 주는 정책을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자리 만들기가 이와 같다면 일자리 찾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있듯이, 소위 직업안정시스템들을 국가에서 관리해 나가는데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알선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사실은 이 자체가 직업안정시스템 자체가 또 일자리가 되지요. 아주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람에 의해서 아주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또 사람을 찾는 쪽 사이에서 서로의 맞지 않는 불일치가 아주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우리 의식의 문제가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면 한쪽은 소위 교육과 연수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못맞추어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안정시스템을 잘 활용하면서 취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직업에 대한 인식과 의식도 바꾸어내고 또 구인과 구직이 불일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도록 학교에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해 나가고 그 이외에 정부가 운영하거나 일반직업교육의 프로그램도 계획성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직장을 찾겠다고 원하면 당장이 아니라도 교육프로그램을 거쳐가면서라도 일치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정말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찾는 부분에 대한 것이 있다면 나머

지 부분은 우리 사회가 페어하게 경쟁하고 그 다음에 학벌이라든지 기타 연고라든지 정실로 취업과 승진과 대우가 결정되는 이런 것이 옛날보다는 매우 좋아졌습니다만 우리 사회문화에 있어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사회문화를 형성해 가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에 대한 문화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신뢰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사회문화를 움직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원칙을 가지고 페어하게 경쟁하고 합리적으로 경쟁하는 이런 정치문화를 만들고 사회 전반의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서 가려고 합니다. 하나의 얘기중에 빠진 것이 있다면 우리 사회가 좀더 개방적이고 다양하고 자유로운 문화로 만들어 나가야 사람들의 창조적 상상력과 창의력이 피어나고 그 사이에서 높은 수준의 문화가 생깁니다. 앞으로 문화영역에서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면 역시 우리 사회를 좀더 개방된 사회, 자유로운 사회로 만들어 가는, 인간의 계승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사회로 만들어 가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좀 일은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길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